진안군, 국가예산 1354억원 확보

전년도 대비 327억원 증가… 공약 · 지역현안사업 추진 탄력

진안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1,354억원을 확보해 공약사업 및 지역현안사업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진안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1,354억원을 확보해 공약사업 및 지역현안사업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327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총 155억원) ▲진안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총 297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총 70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총 46.8억원) ▲지역개발공모사업(총 26억원) ▲새뜰마을 조성사업(총 29억원) ▲대량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총 15억원)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총 21억원) 등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통·문화·경제 365 활력거점 우화'라는 비전으로 청년 정착여건 강화 및 읍을 생활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어 소재지 개발 교두보 마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함으로 용담호 수질관리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진안군 비위생 매립쓰레기 정비 사업은 30년 동안에 걸친 주민숙원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 단계에서 미온적으로 검토되었으나, 국회단계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액 반영되어,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어 주민-행정과의 갈등 해소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들의 성원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2040 진안군 미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든든한 미래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종교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

무주군, 65개 시설 대상 공무원 1:1 매칭 점검 · 온라인 예배 등 권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무주군이 관내 65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상황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현재(12. 8.~ 별도 명령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중으로, 연말을 맞아 대규모 종교 행사(성탄예배 등)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공무원 1:1 매칭 점검(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시설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연시 대면 종교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온라인 예배 등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청정무주도 지키고 군민의 안정된 삶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지만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취소와 멈춤, 철저한 거리두기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무주가 지금 현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경각심, 그리고 방역수칙 실천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지키고 함께 조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내년 예산 4302억원 의결

제281회 정례회 폐회

박찬주 의장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무주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시정요구 83건, 처리요구 53건, 건의 114건 등 총 250건을 시정·개선토록 하였고, 군정질문에서는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과 유송열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적자운영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며 대책을 요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연말 시급히 추진할 집중호우 재해복구 및 재난지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의결된 2021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314억원이 증가한 4,302억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군민편익 증진 등에 집중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원안보다 79억원을 삭감, 최종 확정됐다.

박찬주 의장은 한 달 간의 정례회를 마치면서 "고난이 올 때는 성장과 변화도 함께 동반된다"며, 코로나19와 수해로 힘겨워한 사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 지역 활성화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희망과 믿음을 갖고 늘 새 마음, 새 뜻으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 지급해야"

이해연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난 대비 예산 증액 등 요구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021년도 무주군 본예산(안)을 수정의결한 가운데 예산안을 심의한 이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재난대비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무주군의 재해·재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2021년도 정부예산은 당초 안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났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됐고 70%는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주군의 2021년 예산안은 정부 취지와 정반대로 편성했다. 무주군은 2021년 본예산(안)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구입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무주군이 위민(爲民) 행정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무주군 예산편성 계수조정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피해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을 조정했다. 법적 예산편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 삭감조정하고 미진한 사업 및 예산이 중복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삭감조정했다"며 계수조정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2021 정부예산과 비교해 무주군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빠르게 편성해 제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하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관련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식품 ·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 일제 점검

장수군이 장수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70개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은 16일을 시작으로 장수군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시설, 이·미용 및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청정 장수군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수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2단계 격상 발령에 따라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펼쳐 위생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내 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주민들 개개인이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 방문 자체, 모임 및 행사 연기 또는 취소 등을 실천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일반음식점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

무주가 '찾아와 먹고 싶고 머물고 싶은 으뜸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무주군은 향토음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 업주들의 경영마인드 성장을 위해 일반음식점 현장중심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이하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을 진행, 지난 15일 6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맺고 컨설팅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관내 일반음식점 10곳을 선정했으며, ▲무주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선행 조사를 실시(7~8월)한 것을 비롯해 ▲대상 업소에 대한 현장 실사 및 메뉴 컨설팅(7~10월), ▲메뉴 점검(10~11월), ▲품평회(11~12월) 등 4차에 걸친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을 진행했다.

무주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일반음식점 현장중심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은 결국, 골목식당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 컨설팅이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저탄소생활 실천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장수군이 '2020년 전라북도 저탄소생활 실천 평가보고회'에서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저탄소생활 실천 평가보고회는 한 해 동안의 저탄소 생활 실천의 활동성과 및 시·군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우수 지자체 및 컨설턴트를 선발하며, 장수군은 탄소포인트 가입, 에너지 진단 컨설팅 추진, 폭염 취약계층 관리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친환경 명절 보내기, 친환경 교통주간, 쿨맵시 참여 홍보 연중 다양한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저탄소생활 실천을 확산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